

의로 도망을 할야 슬리가 있다고 더 관철로주가 홍갑의 집에는 무엇하려 못더
란 말이고 그안이 이상한가 아모려도 기간에 무슨 충절이잇는디
안으로 드러와 처란을불너 못는말이라

이이치란아 너의어머니와 추월이가 홍갑에집에는 엇지히서 깃더냐 너는아
말알앗겠지

처란이난 저의어머니가 그 더경되얏다는 말을듯고 눈이동동 붓도록몸부림을
할며올다가 저의 부친이 못난말에 악할마음이 의구히발성할야 저의부친간상
이 슬슬도록도록 흠흠느겨가며 더답호는말이라

(치)아바지 이원슈어서 갑할쥬셔오

(려)이이글제 너어어머니가 갑의집에는 무엇할러 못섯느냐

(치)에그어머니게서 평성나드리라고는 안이항시더니 별셔도라가실 썩가되
야셔 말고잇다가 엇저녁에는 머느린지 막걸인지 그 일을싱각할수록 화도
나시고 분홍다고 줌으시지를못호시고 누엇다 안뎛다항시더니 별안간에 추
월이를불너 압제시키고 시원흔바름이나 쏘이고 드러오시겟다고 나아가섯는
디 잇더냐 들어오실가 더때나 들어오실샤 기다려도 인히소식이 업더니마
는..... 이게다 귀앗이야오 박가년의 닳이지오 그년이 남의집에 드러와서
어러케도 망히호냐

에그 고년이 것헤잇스면 더강이에서브러 어드등어드등 세무러먹어 어머니
원슈를 갑할러이야오

(려)이번일은 조가놈의 소위가 분명홀티 소위 네 오리비딕이야 상관이 잇는
냐

(치)조가가 우리어머니와 무슨원슈가 잇셔셔 그더경을히요 인제보면알지마
는 이일이 귀조화인줄 알으셔요 필경박가년이 간부의게 돈을 만히어더조
가를먹이고 어머니만 죽여달나호잇가 돈이잇스면 귀신도부린다고 조가가
돈에회가동호야 추월을 구슈할게싸여셔 어머니를 갑야집으로 도라가시도
록호고 그 거조를흔것이지오

(려)이이 그난네말이 근이치안이항다 네오리비딕은 데천정의가잇는디 조가
가 충청도를 갖다왔스면 이어나와 그러치안으면 엇더케 서로맛나보고 약
속을호앗단 말이냐

(치)에구아바지게셔는 잇셔셔지쌌속에게신 말슴을호십니다 아바지 생각에
는 박가년이 지금저의 천정으로가잇는 줄로알으심잇가

(려)그러면 엇의잇단말이나

(치)아죽도 이근처에 엇의잇다는 소문을 어머니도드르시고 나도드릿지마는
아바지씨는 엇줍지를 안이히셔오

(려) 무엇이냐 그년이 제 친정으로 안이 가고 이 근처에 만났고 보면 네 말과 갖치
그년의 조화기도 십상팔구로구나 그리그년이 엇의가 있다더냐 문안에 있다
더냐 문밖에 있다더냐

(치) 요스이는 엇의 있는지 그동안에 몇놈에게로 도라달이다가 시비가니러나
서 구두쇠까지 지금양쥬음에 갖치여아 다는더오
려승지의눈이 둥그리지며

(려) 이의 그게 무슨 소리냐 구두쇠가 집에업길니 너의어머니 다려무러보잇가
제본고향이 원쥬감영인디 단이러가서 이역까지 안이온다할더니 양쥬음에
가가치다니 나는금사초문(今是初聞)이로구나

(치) 글제 아바지씩셔 알으시면 속이더상할실 터잇가 엇쥬지를 안이히시오

(려) 그러면 구두쇠는 엇더케하다가 갖치어잇단 말이나

(치) 그속너는 족제물나도 아마그씩 친정으로 터려다쥬라고 가다가 쥬로에서
뭇놈이나셔셔 서로싸아셔 가라는통에 잘못어루디다가 그시비통에 드러셔
양쥬음으로 잡혀갓다던지오 엇지히다던지오 어머니게셔 나다려그런저세흔
말슴을 엇어드러셔야 알앗지오

(려) 허허 집안이 망하랴닛가 벌피약할것을 머느리로 터려왔다가 이디경이되
얏고나 그러면 너의어머니 죽인것이 별슈업시 그년의 조화로구나 오나가만

히잇거라 양쥬음으로 그일부터 도스하야가지고 너의어머니 원슈를감하야
할갓다

출런효성이 넋날민조건을 본밧앗다할만흔 려경현은 동그방학을당하야 부모
의 일골을뵈오라고 집으로 도라오논디 살보다빠른 기선이오히러더디 가는듯
마음에 답답히여이며 부산와 함륙하야 즉시기차를 타고올나오며 북편향날을
눈이썩러지게 바라보고여러가지 감동하논 뭇음이라

인저는 몇시동안 안이되야 아바지 어머니 일골을 뵈입갓다 슬하의 우리남
뭇썸잇다가 내가이모양으로 오리셔나잇스니 썩셔로여복 보고심어할나구
아바지게셔는 남조시라 미스에티범하셔셔 나보고심으신 뭇음을 여제하셔
고 밧곳교제에 착심하셔셔 너싱각을 이즈실적이 게시갓지마는 어머니께서
논 아모리나를 나으시지 안이할실사람이지 사랑하시기논 귀출보다 더녀이
시논터이신디 미양말슴하시는것을 드르면 썸즈식이라는것은 소용업셔아직
압헤잇스잇가 귀하니 엇져니하지 제는차셔 식집을보닌면 그상짓것소용업
고 너하나를 티산곳차밧는다 아못조록 공부를잘하야 나의밧는듯을 저바리
지마라 하시던말슴이 귀에져져잇는디 이긋치오리 썸낫다가 오날은다논던
보를보시고 오작고되고티할실나구
그러나 처란어논 성미가 조곰협이흔디 소위나의 너즈와 닷도저나 안이할

얏난지 처란이 난 혈이 흐지마는 나에너저는 위인이 능히참고 부드러운잇가
응당 무슨탈은 안이너였겠지

경현의 이말을듯고보면 아모라도의심두기를 지금던보우레가 낙역부절할세게
에박씨가조과 신세된말을 엇지하야 괴벌을 안이흐얏스며 러승지는 짐안에
그런큰변이 련첩났거늘 엇지하야 큰아들에게 통지를안이흐얏노 할터이지만
은박씨는 조과는 팔자가괴구하야 그지경이되야 심성구스홀지언정 그티괴벌
을흐얏다는 조괴남편의 마음이 상하야 공부를 전일히못홀가 녀려하야 이를
세물고 참아가며 던보나우레로 괴벌을안이 홀일이오 러승지는 제가동괴방하
에야 온다흐얏스즉 미구불원간 잠에를을터인티 귀티여급보를 흐얏다가어린
가슴에 놀나 병이나면 엇지하리 심은성각으로 모로논체하고 잇슴이러라 경
현이가 아모물식모로고 남문밖정거장을 당도하니 차가씩 멈춰어스며 승의
드리 분분히너리논티 조괴도살아 너리잇가 집안호인들이 모다나와서 영접을
하논티 반가움을 의의지못하야 면々히인스를하며 첫세곳은말이

령감근력 판게치안으시고 마님께서도 병환이나 안이계신가
자근아씨도잘잇고 또아씨도별탈업나

하예비들이 그못은말에 티하야 무엇이라 홀슈업서 무비어름어름 티답하기를
서방님 안령이환초히 계십시오닛가 령감게서 고티고티 하시는티 어서드러

가시지요 자근아씨게셔도 미오기티리십니다

경현이논 하인에그좁 티답하논것을 무심히듯고 처근히무를 여부업시 급히인
력거를모라 조괴집으로 드러와더라

먼저사랑으로 드러가 조괴부친을 뵈옵고 분분히안으로 드러가랴하논티 러승
지가 두눈에 눈물을흘리며

(러) 잘왔나나 게안거라 내가홀말이잇다

(경) 어머님께 뵈옵고 나오게습니다

(러) 내말을드르니 기가막힌다 너의어머니가 죽엇단다

경현이가 눈이동그리지며 슬음이북박쳐 펄떡주더안즈며

(경) 어머님께서 도라가서단이오 무슨병환에 인제도가섯셔오

(러) 병이나드러 죽엇스면 무슨홀이 되겟나나

(경) 그러면 웬곡절이온잇가

러승지가 한숨을길게쉬고 구씨를 색조괴며는리가 죽인것처럼 조초지종일창
을 눈물을흘여가며 홀숨을쉬여가며 말을하니

경현이난 아모말업시 감안이안져 듯다가 우를을 삭긱치고 벌떡이러나며

(경) 아바지 걱정마르십시오 제가이길노나서셔 어머니원슈를 갑고말터이올서
다

(려)이이경소리 골지마라 공연히 얼인네가 잘못하다가 너까지라도 무슨힘을 당할지모로니

(경)안이올시다 조식되야 어머니원수를 못 갚으면 살아쓸티가 잇슴잇가 제 힘에부치여 일변히를 당하난디경이 잇더럭도 관계치 안아합니다

(려)글세이이야 너는죽은 어미만알고 살아잇는 아비는모른단말이나 초라리 너의어머니보수는 곧할지언정 아비성면에 씌죽힐일은 안이되여야 네도리 에올치

죄는 지은티로 간다는 격언과 일반으로 이리케 조금히 네가골지 안이홀티 도 종당은 발각이다되여 너의어머니 원수를 시원히 갚힐날이잇는이라

또흔가지 그리치안이흔 일이잇다 구두쇠가 지금양죽음에 못치여잇다호니 지금곳 그놈을 압상호야 심문을호야달나고 법소에 신청호면 구두쇠입에서 이일이엇던년놈의 소위인지 필경달로 될것이나 그썩가져 법소에서 얼련이 법지법티로 설분을호야 쥬겟나나

(경)구두쇠는 엇지호가 양죽음에 못치여슴잇가

(려)나력시 그스실을아직 조세모른다마는 대강듯건티 소위네안악아라는 것 써문에 그디경이된 모양이다

경현아가 출던효성으로 당장에 스성을불고호고 조선각을쳐져 그어머니 웬슈

를 갑조함이러니 조그부천에 리악이를 다듯고 공금싱각호야분죽 저간에 의 심이 얼마썸성기기를

조식이되야셔 이리케싱각두난것은 들인일이나 어머니성품이 본리순탄치를 못호셔셔 며느리박티를 미상불자심히 호섯것다.....

나의니조가 나은비록 어릴법히도 점자는가정에서 싱장호야 미스에상업지 를 안이호얏는티 엇지호야불미흔 행동이그디경까지 이르렀소.....

구두쇠놈은 본리심스불량호야 미스를 상면속이기로 위쥬호고 나아가면 귀 응전을뜻어 불피던불외디흔 거조로 상전의낫을 종종씩기게호던 놈인티 상 전위호는 미음이 졸디의 엇의셔그리케 싱기여셔 제몸이구옥에 갖치는것을 불고호고 상전을위호어나섯던고.....

조선각으로 말하면 그조가일직이 동경에유학을호야 문명호공의를 마신터 인디 간음등스에 간련이되야 사름을 들식살히를 엇지히셔호얏노.....

그런간음등스에 간련되야 돈을받고 사름을살히히스면 아모조록 제종적을 감출터인디 엇지호야 제성명을 벽상에다 대셔특셔호얏노 아모려도 이일이 필유곡절호것이니 니 분을쥬참스고 아바님말슴티로 경찰셔에 신청호야 구 두쇠를 압상호야 심문을호연후에 죄우간 조처호난일이 올릿다 호고 묵묵히안젼는디 러스지의료량업는 말이라

이이우리집이 세계조명되기로 형제조출하기로 씬더니 너를장가 잘못드린
 탓으로 남뭇그러온 일 당하고 일조일석에 집가지망케되얏스니 에구구...
 우리집과 박가의집과는 불공덕던지심슈(不共戴天之深讐)다 네가미거치 안
 이힐터이니 박가에집과는 세계유언하고 상관을말아야 당연호이라

경현이가 눈물을씻고 다시말어안지며 제가아모리 미거함음기로 부모에원슈
 를 다시상관함오릿가마는.....
 러승지가화를버리니며

마는마는이다무엇이나 네가아비에말을올케듯지를 안이호난 모양아로구나
 썩먹듯이 일이닛가 다시상관함오릿가마는...호니 아쥬거절호지 못호겟단
 말아로구나

경현이가 황송함말소리로

(경)안이올시다 그러케였쥬 말삼이안이라 던호만스를 일변지언으로는 실정
 을알기어렵스은즉 리두호희를 조세치근후에 좌우간처사호는것이 가호을뜻
 호와 영조것이올시다

(려)올치네말 알아듯겟다 내말은 일편지언이닛가 네게집은 죄가업고 네어미
 죽은것도 당연함다는 의스로구나
 경현이가 썩어업터여 디죄를호며

천상에 아모리 불초의조식이음기로 제어미죽은것을 당연함다는것이 잇스
 오릿가 제소견에는 아바님씩셔도 아직일편지언을 드르섯지 더편말은듯지
 못호섯스니 량방에 말을다드른후에 조처함이 조호듯호성각이드려 엇쥬일
 이오니 글이동축함음소서 너무상심치 마르압시고 위션구두죄부터 압상함
 야 일일신문함은후 만일그죄책이 박가녀즈에 간련이잇쌌거던 그것역시압
 상함야 제말을 기리엄초함후 원슈를 가함이 엇더함을난지오

(려)나는 무엇이라고호디나 니말이 그말인디 응 아히들이 가장호즈아는체함
 야가지고 지필을이리로 가지고와셔 경찰서에 구두죄압상 심문함야달나는
 신청서를써라

잇석에 구두죄는 옥속에 여러날호치어 구멍밥을먹으며 제지은죄를 곱곱성각
 홀죽 백번죽어도 호소호꽃이 업는지라 미련호놈의 소견에도
 니가어츠어피 죽기는일반인디 이모양으로 고성을호며 구구히살아서 무엇
 호리 진작죽어 고성을들호얏스면 좃킵는디 손가락만호 칼쌌호나업스니 비
 라도갈나 죽을슈업고 단호발되난 싰나불이업스니 목이라도 미여죽을슈업
 스니 이노릇을 엇지호면 호호스고

호며 두루두루돌너보디나 마루호편구석에 당석류황호리가 썩러져잇는지라
 반가히집어 벽에다 드욱거어 그불을 제임은의복에다 디여노으니 불쌌쳐활활

일어나며 구두쇠가 숯등걸이 되어 죽었다 구두쇠 그 모양으로 죽던이든날에
공교히 경찰서압상 훈령이니려왔다라
로좌슈가 즉시구두쇠에 자살할 형디의 답 보고를하니 구씨 피살할 증거를 심
사할곳이 바어엿더라

려승지에 생각못히서는 구두쇠는 괴위죽었스니 홀일업거니와 그일이별슈업
시즈고며느리의 소위로녀여 곳압상하야달나 신청을하야 엄형취초하고 심으
나 경현이가 지성스것 간혹기를

아바님 김히통축하옵소서 박가녀즈의 죄상을 심분무의로 녀이고 압상하는
디경에 일으렸다가 만일실범이 업는디경이면 원수도감지못하고 한갓남의
위세만홀터이오니 아즉참고계옵시면 제가무슨 방법을하옵던지 어마님피히
하심을담지하야 아바님근심이 업서지시키고 어마님원혼이 김버하시도록하오
리다

려승지가 본질은 악인은안이나 요처에게 고평하바—되야 청탁을 분별치못하
논터이나 즈고아들 경현의간하는말은 근리히드러던지

오냐 니알아하라 그러나네가 심분싱각하야 처스를할것이 너에어머니가 너
를나온터곳흐면 네가원슈를 감흐라다가 못감더리도 남의평판이 업슬것이
너네가그소성이 안인즉 만일네가 원슈를못감는날이면 입문사람마다 흉보

기를 아모렴그렷치 제친성모가 안이잇가 제 계집만알고 원슈를 안이감지
하야 너를계집보다 어미를 경히녀이는 불효조로 돌일터이니 알아서하야라
나논니일죽을지 모러죽을지 모로는 인성이오 쏘는니가 극력슈장하야 박가
녀를 압상하는날이면 남의집니용 지세모로는 사름들은 계집을위하야 며느
리를 그른곳으로 모라넋다는 말이싱길터이라
나논즈금이후로 도모지 모로논체하고 잇슬것이니 네가어미 원슈를 감던지
말던지 료량하야하야라

경현이가 그날부터 나서서 몬져양슈쌍으로 향하야성명을 감초고 망문투식을
하며 소문을담지하논터

엇저엇지 다리를것어 서산감악골로 드러가 박씨부인 먼저드러갓던 로옹의
집에를 차즈긱더라

로옹은 일썬 도망군이 녀즈를만나 갈춘영의게 중미를하고 전박이나 엿어먹
으라다가 박씨가 목을미여 지쳐하라는것을보고 혼이 더러나서 아모참섭도못
하고 잇다가 박씨가 춘영의집에 아모말업시 잘잇다는 말을듣고 로옹이 다시
슬몃시가서 춘영을보고 제공쳐스도하고 춘영을 권하야 어서결혼을하라 하는
차의 의외에 풍파가나서 구두쇠가와서 야료를한다 판차가 나아와 모조리 잡
아가는량을보고 즈고도 그틈에 못치들잡아 겁이엇지 나던지 즈고집 문밖게

도 감히 니다 보지 못하고 시침이를 똑 빼고 있더니
필경 그 송스가 업치락 뒤치락하다가 춘영이편이 득송을 향앗스나 혼인은 안
이 되고 남미지의를 밋졌단 말을 듯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혼인이 안이 되야서 내게 돈 혼 혼 도라 올것은 업스나 갈서방이 득송을 향앗다
나 내 마음이 인제야 노인다

지직이나 미여 두 늙은이가 호구를 향논터에 어림업시 혼인 중미를 향라다가
은근히 마음이 사 못조리는걸

어 이 그 등스에는 다시 상관을 일절 말어 야 할 것 다 공연히 큰 봉변 흥번히다
향야 로파다려 리 약이를 향며 부락을 향더니 하로난 엇더호 소년이 츠즈와 다

리 슈여감을 청하니 로오니외는 조식이업는 스름이라 남의 조식이라도 으히
나 소년을 보면 특별히 사랑스러운 마음이 잇던터인디 위인이 단정하고 언스

가 온순한 소년이라와서 주인차즈 잠시 쉬여감을 청하니 초면이언마는 숙면이
나다름업시 반가워서 조금도 슬임업시

에 구 쉬여가지지오 그러나 내집이 루추히서 안이 되얏습니다
그 소년은 별사람이 안이라 고풍승지의 아들 경현이라

(경) 처만의 말씀을 다 향심니다 닥이 미오 정결향야 시골집곳지를 안이 혼길의
오

(로) 그러면 이리로 드리오시오
향고 마누라를 분유히 불너 방에서 지리를 니여 설고

(로) 이리로 드러와 안지시오 그러나 어티 계신 량반이시오잇가
(경) 네 나는 적성싸에 스옵니다

(로) 뒤덕이시오닛가
(경) 네 러서방이올시다

(로) 적성사는 러서방이시면 무슨스로 이근처에 올 오섯던가오
(경) 네 별로 볼일은 업시 유람츠로 여기더과 돌아단이는 터이올시다

(로) 그러나 시장하시겟구려
향더니 마누라를 부른다

(로) 여보 마누라 밥지은것잇소 만일 업거던 식로 지어셔라도 한상 츠려다가
이 량반씩 드리오

(로) 아침에 지은밥 먹지안은것이 잇스니 그기를 차려올가오
(로) 아침밥이 식어서 이 처운날 엇더케 지시겟소 식로 짓기가 더디거던 다음

게 데워오시오
로파가 분유히 밥상을 차려다 경현이 압헤다 노오며

에 그 참 진지가 되야서 미안합니다

경현이가 공손히 상을 밧아 노으며

천만에 말씀도 하시니다

그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린 후에 잘 먹었다 저 숨치사하고 짐짓 하는 말이라
어디 다리도 몹시 앓는다 더고기를 넘어갈라면 어렵게는걸

하고 간신히 내려나 부시럭 부시럭 신발을 들메니 로옹이 보가에 딱하던지

(로) 만일 급히 불일이 업스시거던 아모디에서나 쉬여가시게오그러 우리집
에난 두늬은이 밧게 아모도업스즉 무슨 흥취물이 잇슴닛가

(경) 말씀은 더욱감스하오나 본리 천쵸지도 못함음난터에 불안하여서 그리
힘니다

(로) 별말씀도하시오 불안이 다무엇이야오 도구들을 누추히 녀이시지안이하고
즈음사면 두늬은이가 적적하던 얼마썸 도흘는지 모로겟소

경현이가 못익이논체하고 그날밤을 그로옹에집에서 누어저더라

석반을 치룬후 로옹의외와 경현이가 서로마주안져 이련이악이 저련이악이를
하논디 경현은일변 슈문슈담을하며 일변 박씨스실을 쓰아논디

(경) 로인장게서 본리가곳에서 거성하섯는지 중간에 반이를하섯는지오

(로) 니말씀이오 내가본리 서울성장으로 습심이넘도록 만가히 지니며 일슈
를뵈타가 몹슬히운 갑진시월지변을 당하야 당장스름이 모다죽는줄로 알고

서 제각기 피란을 가는통에 적지안이 폐여 노앗던것본을 혼푼것지 못하고
죄다 아러스니 그지경에 빅스지쌍에서 살획척이업서서 부득이 락향을하야
이리더리 뒤쳐여단이다가 저작년에 아동리로와서 집신결네 지직립을 미여
니외가 구명도성을하야 감니다

(경) 가이업스시오 그러나 로인슴시 뵈와도 범절이 점즈나서 응당남의 못할
노릇을 안이하섯슬터인즉 아직은 끈궁하셔도 차차복을 누리시겟시오

로옹이 썰々우으며

(로) 차차라뇨 니나히지금 룽십이 넘엇는디 언제복을 누리여오

복을 누리즈면 소년뉘에 저식이나 두엇셔야 저식의덕이나 본다고하시오 저
식도업고 빅이스지를 하디도 죽는날까지 고성이시오

또는세상에 알슈업는것은 하늘 리치음디다 니말은 할것업거니와 이늬어나
가 룽십년 동안을 감안이두고 보닛가 범절이 무던하야 남의게 칭찬들을만
할스름은 괴고히 고성을격고 마음악하게 가저는것드른 도로혀 아모일업습
디다

경현이는 그말에 귀가싸여 되쵸츠말을 자아니기를

(경) 그럴리가잇는요 세상업셔도 악할무리는 죄를밧고 착한사람은 복을밧
습니다

(로) 웬걸이오 그리치안이히오 니가 목격호일일이 호두가지가 안인걸이오
 (경) 목경을 호시단이오 착호스름 잘못되고 악호스름 잘되는것을 만히 보섯
 단 말씀이오

(로) 보고말고오 근일에도 그런일이 당장잇난디오

로과가 것히안디 물네질을하다가 저그령감 편잔쥬는말이라

(로과) 여보일이업거던 잠이나자오 공연이 깃설스럼게 무슨 소리를호려고

더리오

에구 저금제상은 니입가지고 말호기도 무사 무시호디다 잣쳤호디면 큰봉변

호것을 조상의 벗이바로드러셔 면호얏는디

웨싱각업시 무슨말을호랴라고 가만이잇스면 입이 간질간질 호감

(로) 내가무슨 리약이를호길니 이리야단을호시 호만호 말이면호고 못호말이

면 못호는것이지 내입가지고말도 내마음티로 못호사

경현이가 열골에 가득히 우숨을 썬우고

(경) 마누라님말씀이 을소이다 세상인심이 엇지호박호지 참니입가지고 말호

기도 무셔워요

그러나 나로말호호오면 한동아사는 러도안이오 타곳 스름일썬더러 내년고는

어림이다마는 무론 무슨말이던지 드르면 드를싸름이지 입이경호게 이리져

리 음긴일이 업습니다

(로) 아모럼 그러실러이지오 마누라가 망영으로 공연히그리지 별노말될말도

리약이 호것이업셔요

호고 그다음부터 진담투설 짓거리호는것이 다만저의 살남살이호는일과 금년곡

식에 무엇이 잘되고 못되였다는 말썬이라

경현이가 아모리 생각호야도 로용에 진담도살을 듯기어려운지라 평성에못히

보던 거죽말을 림시권도로 호마디를호야 쥬인니외에 가슴이 덜척호고 눈이

등그리저게호다

(경) 쥬인장썬셔는 말조심을 극히호시는디 니가 이런말호기는 불가호지마

는 좀시라도 쥬인간이되야 이쳐럼 관곡하 디점호시는디 호마디 귀트임을

안이히 들일슈잇습닛가

(로) 그대 무슨말이야오 니말이 무엇이잇셔오

(경) 나는 저늘길에 드른말이닛가 저세는 알슈업습니다마는 아마 남의말도

와호는인심에 흥설이기도 쉽지요

(로) 갑갑호외다 어서말호호시오 늙은이가 산스골에서 오늘죽을지 니일쥬

을지 모로는 산송장인디 무슨일이잇다고 언의스름이 짓거리더란 말이오

(경) 로인장은 나를 고기호야 호라든 리약이도 중지호는디 말씀은 엇쥬어야

(로) 웬걸이오 그리치안이히오 니가 목격호일일이 호두가지가 안인걸이오
 (경) 목경을 호시단이오 착호스름 잘못되고 악호스름 잘되는것을 만히 보섯
 단 말씀이오

(로) 보고말고오 근일에도 그런일이 당장잇난디오

로과가 것히안디 물네질을하다가 저그령감 편잔쥬는말이라

(로과) 여보일이업거던 잠이나자오 공연이 깃설스럼게 무슨 소리를호려고

더리오

에구 저금제상은 니입가지고 말호기도 무사 무시호디다 잣쳤호디면 큰봉변

호것을 조상의 벗이바로드러셔 면호얏는디

웨싱각업시 무슨말을호랴라고 가만이잇스면 입이 간질간질 호감

(로) 내가무슨 리약이를호길니 이리야단을호시 호만호 말이면호고 못호말이

면 못호는것이지 내입가지고말도 내마음티로 못호사

경현이가 열골에 가득히 우숨을 썬우고

(경) 마누라님말씀이 을소이다 세상인심이 엇지호박호지 참니입가지고 말호

기도 무셔워요

그러나 나로말호호오면 한동아사는 러도안이오 타곳 스름일썬더러 내년고는

어림이다마는 무론 무슨말이던지 드르면 드를싸름이지 입이경호게 이리져

리 음긴일이 업습니다

(로) 아모럼 그러실러이지오 마누라가 망영으로 공연히그리지 별노말될말도

리약이 호것이업셔요

호고 그다음부터 진담투설 짓거리호는것이 다만저의 살남살이호는일과 금년곡

식에 무엇이 잘되고 못되였다는 말썬이라

경현이가 아모리 생각호야도 로용에 진담도살을 듯기어려운지라 평성에못히

보던 거죽말을 림시권도로 호마디를호야 쥬인니외에 가슴이 덜척호고 눈이

등그리저게호다

(경) 쥬인장썬셔는 말조심을 극히호시는디 니가 이런말호기는 불가호지마

는 좀시라도 쥬인간이되야 이쳐럼 관곡하 디점호시는디 호마디 귀트임을

안이히 들일슈잇습닛가

(로) 그대 무슨말이야오 니말이 무엇이잇셔오

(경) 나는 저늘길에 드른말이닛가 저세는 알슈업습니다마는 아마 남의말도

와호는인심에 흥설이기도 쉽지요

(로) 갑갑호외다 어서말호호시오 늙은이가 산스골에서 오늘죽을지 니일쥬

을지 모로는 산송장인디 무슨일이잇다고 언의스름이 짓거리더란 말이오

(경) 로인장은 나를 고기호야 호라든 리약이도 중지호는디 말씀은 엇쥬어야

을을시오

(로) 안이 로형이 괴위말씀을 뇌신삿이니 리약이를하시오 나 도아씨 리약이
하라 던것을 엇줍지오

(경) 내가이러케 로인장덕에와 누어잘줄 알앗더면 조세치근하야 무러나불겜
그덕은 무심히듯고 지닛습니다 그런디 엇더케된 말삿인지 조세는 알슈업
스나 오늘양유읍압으로 지나오논디 엇던스름들이 서로 길에가안져 리약이
항기를 늑으니집이 엇의인고 압다 셔산감악스골 응달 외선집이라 네 허허
그늑으니 명랑하지 안이흔가 백유에 스부가 부인을 세돌녀싸가 제동리스
름을 쥬라고 하얏더람 이사름 돈이식엿지 제 믿음으로호 노릇인가 그런짓
을하고 능히무스할싸 무스가 다무엇인가 오리지안이하야 큰봉변을호리 그
즈슈작하느것을 듯기는하얏스나 누구에말인지 알지못하느터에 광축하게무
러볼 필요는업고 무심히지닛더니

지금 와보닛가 덕이 그사름네들 말하던집과 방불하고 쥬인장 뇌외분이 더
러케 늑으섯스닛가 생각이나셔 말슴을하얏습니다

로옹은밋쳐 말을못하고 묵묵히안젧는디 로파가 문리질을 곳치고 경현의 압
으로 도라안즈며

(로파) 엇던놈이 그싸위 아깁이를 버리더란말이오 괴왕말이낫스나 뇌가이약

이를하리다

(로) 을치 더량반 드르시논디 마누라가 자세히 리약을 좀호오 세상인심이
피약도하지 아모죄업는 이늑은이다려 엇던 몫슬놈이 이미호말을 흠부로호
더란말인고

(로파) 내가 조초지종을 다말할것이니 손님드러보시오

(경) 예이어서리약이를 하시오

(로파) 우리뇌외가 압헤남녀간 조식하나업고 밤낫고적하게 지니논디

(경) 그리셔오

(로파) 언의날은 잠은 안이오고 령감파 이왕일 이다음일 이말 저말 호노란
니 부지중 늑이올씩가 되얏난디

(경) 그리셔오

(로파) 난디업는 대문두달이난 소리가나기에 잠씩놀나 나아가분죽

(경) 밤중에 누가와셔 초져오 그리셔오

(로파) 웬 싯갓치 절문녀편네가 아랫도리에 이슬을휘말고 신도못신고 밭밭
로 사름를 살녀달나하기에

(경) 어서말슴하시오 그게엔일인가

(로파) 글세 드러보시오 인간구제는 인간이호다구 련약호녀즈가 그밤중에

그지스경이 되어 살이여달나 하는것을 목석간장 안인바의 거절할슈가 잇습
닛가

(경) 그럴터이지오

(로과) 방으로 다리고 드러와 밥도디접히고 의복도 말나어넘게 할후 누구관
디 이밤에 저모양으로 나섰노무려도 바로말을 안이하고 이름어름하는양
이 못지안이하야도 도망군이긋기로 짐의두기가 겁이나서 그이른날부터루
루히다른뒤로 가라구지촉흔즉 사름을 구제할터에 아조살여 달나고 저스하
고 안이가오나 홀일업시 집에다 두엇더람니다

(경) 그저 그녀즈가 덕에잇노요

(로과) 잇기는 누가잇셔오 그리여려날을두고 가만히본즉 조신범절이 아조암
전하야 도망군이긋지도 안이홀뿐안이라 아모도 차져오는 사름이업기로우
리뒤외의 생각들기를 저녀네편를 집에두고 먹이지녀 어려운형제에 할슈업
고 엇의로 피초흔롭지 안이하도록 구쳐하야주는것이 올겐거니하야 우리동
리갈셔방님이 마참 호라비가되얏기로 령감이 가보고 의론을호섯더니 갈
셔방님이 뒤오도타고 천허와셔 선사지본후 그잇은날 달려가기로 약도호얏
난티 그녀즈다려 그스실을 말홀라다가 무엇이라홀줄 모를뿐이라 이하은이
니외가 그럴일이 처음이라 참아직접면티하야 말홀슈가 업셔셔

어름어름속이고 갈셔방님뒤으로 보되라고 호얏더니

(경) 그리안이갓나오

(로과) 글세 드러보셔오 그녀즈가 이집의 잇지못홀디경이면 바로즈그 믿음
터로 아모뒤로나 가겟다고 홀뿐이고 가기에 슬몹이 불안홀모음이 드러셔
갈셔방님을 뵈옵고 하인식여 붓잡어드리라 호얏더니 그양반이 즉시 호인
을회동하야 다리고 쫓초가사다가 그녀인이 더압축동 나무가지에다 목을디
고 방지 사경인것을 보시고 급급히 구제하야 그덕에다뉘이고 극진히 치료
하야 다시뛰여났는티오

(경) 뛰여나셔 지금갈씨에 짐의그저잇노오

(로과) 그짐의 그저잇기는이오 에구이 나약이를 다호즈면 오날밤이 모즈랄
터이야

갈셔방님이 그녀인을 그처럼 극력구제하기난 상쳐홀지 여러달에 홀아비로
게신이닛가 인히늘너 터리고 살아볼 경륜인디 급기혼인을 호즈홀즉 그녀
인이 듯지안이하고 을구명으로짜쳐 또 도망을 호엿드람니다

(로) 마누라가 리약을 죄다엿줍는 터이니말이지 그분의절형은 참장하여오

(경) 도망을 헛스면 아조간곳을 모로노요

(로과) 엇의치 도망을호얏습닛가 그녀인이 그덕 뒤동산으로 런방 지방 다라

난단 뒤 웬놈들이 별안간에 우루루 달려드러 살고가라고 한참 험난한 것을 갈서방님이 알으시고 집안중인과 동리백성을 슈십명 모집하여 데리고 쫓아가니 한놈 두놈 다다라나고 신슈사오나온놈 하나이 붓잡혔는데 압다그놈 흉악도 합디다 그놈이 그녀인의 식집구종놈이라난디 제상던을 몰나보고 말버릇을 할부루하며 남뒤는것을 갈서방님이 하인을 호령하여 잡아결박후 잔치질을 하여가며 문초호족 그영악한 놈도 미는무섭던지 바로도설하여 다는것을 드른닛가 그녀인은 누구인고하나 서울스는 러승지의 머니리 인디 그식어머나가 런항에 몸실것으로 그며느리를 각식으로 학대를하다못 할야 종리에논 팔아먹으라고 사지하는것을 그녀인이 알고 몸을 썩쳐도망하야 온것인디 돈주고 제집사람은 돈도로 유난것도실코 그계집만 쳐저노으라고 야단을쳐닛가 식어머라는것이 견디다못하여 제집구종놈을 너여노아스면슈소문하고 우리동리를 쳐저온것입디다

경현이가 제사지 리약을 드르니 박씨죄업는것이 심분짐작 나는중 그다음일이 궁금항야서 다조쳐무르니 로파가 말뜻은 사작하야 노코 고만두는슈가 업셔셔

(로파) 에그 우리동리 량반이라고 칭찬어안이라 갈서방님갓치 무던하고의리잇는 량반은 이세상의 다시업지오 그놈의말을듯고 비로소 그녀인이 상업

지안은딕 아씨로 알썬안이라 그남편이 두릿이잇는것을 알으시고 당초에경윤항얏던 믿음은다바리고 그자리에서 그아씨와 결의남미를 항얏드라오아차한가지말은 썩여노앗고 그서방님쳐남되는 차서방님이 더감은돌 사시는디 그척마참 오셨다가 역시그아씨와 남미지의를밧고 방장그아씨 설원을항야줄 노름을 고만한포승에 여겨갈지오

(경) 그것은 무슨죄로 잡아갔는지 그저노이지 못항얏소

(로) 그디경이 성기닛가 우리 령감은 죄업시 겁이나서티문밧개를 감히 나아가지 못항고 잇는사득으로 엇더케 된곡절인지 저세히는 모로지오

(경) 그럴리가잇소 갈씨의집이 이웃이라며 읍니로 잡혀가 엇지된 하회를조연알앗슬러인디 주인장님의분이 못드르섯세오

로용이 썩스우스며

(로) 로형은 남의일을 그리저세알아 무엇항라고 이리무르시오 앓가우리 마누라도 당부합디마는 세월이엇지된 판인지 남의말입밧게 할부루니기도어려워요

(경) 아모리 남의일이라도 썩 궁금항구려 어서이약을 마저항시오

(로) 내가 이모양으로 두문불출하닛가 소문을 일일히들을슈야 잇소마는 동리사람들의 리약을 풍편으로 드른닛가

그일이 그아씨다라라던자가 원님께 길이 조화서 단々히 청을하고 갈서방
님남미를 구축하고 그아씨를 세아서 주라하야 씬씩할슈업게 되었다나 런히
으로 밤스리로 그 원님이 장파를 당하고 좌슈로잇는 로씨가 서리근슈가되얏
는디

세상에 이상한일도 많습디다 로좌슈는 무슨주점이 들엇던지 그송스를번복
하야 러승지덕 구중놈은 엄청하옥하고 갈씨차씨와 그아씨를모다 빌방하야
즈괴집에다 두엇다가 충청도천정으로 보닛다던지오

(경)그녀는 천정으로 갔스련이와 갈씨와차씨는 즈괴집에 잇게지오

(로)그 두분이오 그 두분도덕에 업지오 그아씨를 비형하야가셨다는디 아직안
이오셨나볼디다

경현이가 주인년의 말을듯고 생각할즉 나의니즈가 고성을 여디업시흔 모양인디양
나셔는디 무식한자의 전하는말이라 즈세하리유를 험득지어려운지라 너심으
로

주인년의 의 말을듯고 생각할즉 나의니즈가 고성을 여디업시흔 모양인디양
주읍에서 엇더케된스실을 분명히 알슈가업는디... 오! 그스실을 즈세알
나면 된 슈가있다 니가리일 일즉셔나셔 음으로드러가 로좌슈를 차즈보고
최근을 좀하야보겟다

주인년의와 그슈작을 그렇게령 맞치고 그잇흔날 조반을일즉이 먹은후 주인
을작별하고 양주읍에를 드러가더라

로좌슈에집이 양주읍에서 여러디 살썬안이라 로좌슈의즈격이 험나이로 나지
를안이하야 일읍디소사를 쥐엿다 펴다하얏는고로 로좌슈집이 엇의냐 무르면
슴척동즈라도 모다알만하중 더구나 현금근슈리로잇스니 그집을누가모로리
오 경현이가 조금셔슴지 안이하고 쏜살긋치 로좌슈집을 차즈긋는디 오야에
마디라는것은 이상스러운 적인이라 로좌슈가 불썬불우히 하필 경현이 초즈가
던날 급히관격이되야 불성인스로 자리에 누엇는지라 경현이가 말을무러보기
는 고사하고 초면에 문병은모양썬되야 정히난쳐흔디 가량 로좌슈의 지각난
아달이나 죽하가잇는디호하면 로좌슈는 위셔하얏슬지라도 즈괴집에 온손이
니 경현을엮접하야 그날밤을지여 보이기라도 하얏스련만은

그집에는 몰각할글레들이 사량을슈직하고 잇는터인디 소위과격이니 걸격이
니하난 무리들이 사량을 초저드러와자면 담비스디낫 슈가락낫을 일슈집어가
고정심헌즈는 강도절도를 소귀하야 드리는악습이 종종잇슴으로 물론과격이
라하면 불문곡직하고 너엿뜻기로만 위슈를하난중인디

경현의게는 무슨선심이나셔 후디를하얏스리오
여보웬량반이시오 우리딴에는 아모도안이게시오

경현이가 근절이 말하기를

일세는 점을고 잘못이 업스니 하로밤만 자고 가게 할야 주시게오

하례가 첫디 눈을 싹 불름싹며

(하) 진작 다른디로 나가보아오 우리댁의는 령감씩셔 병환이 침중호셔셔 안

악에 누어게서고 아모경황이 업스니 여러말말고 어서가시오

(경) 밥은 주시나 마는 사랑의셔 하로밤조고만가게 할야 주옵소서

(하) 보아하니 그만경위는알말흔 점은천구가 말호는것은 아쇼 몰경위오그러

잔소리고만두고 진작가오

하더니 손목을살어 뒤문밖그로 넘어싹고 문빗장을 싹싹거리버리니 경현이가
엇지호는도리가업셔 그엽다른집 사랑의가 그밤을간신히지고 슬슬도라단이며
이사람도 붓잡고 로좌수에병세를 무러보고 저사람도 붓잡고 박씨송사일절을
무러보난디 여출일구(如出一口)로 로좌수에병세가 세상업셔도 희춘키어렵다
박씨일이 시원상쾌 하다호면서 조세호니용은 아는자가 한나도업는지 알고도
성면적이라고 말을안이호는지 도모지스실을 바로알슈업셔 정히 민망호야 엇
지호면도호지 모르든조 맛춤 디변이급호야 외척을 초져가니 그세난 정히이
경가량은되얏고 그외척은 각슈 영업호는집과 벽을격호야 그집사랑방에서 짓
거리는말이 그외척에 일일히들니더라

경현이가 뒤보는것은 예스가되고 벽에다 귀를 기우려 무슨말을 이시도록 듣
는다

(갑) 하나님께셔 공평치도 못호시지 구두쇠놈은 그모양으로 뒤여져짜지마는

로좌슈님께셔 언의식 도라가시는것은 참 가이업스일인걸

(을) 무엇이 가이업셔 남의적악호고 그만치산것도 씬죽호지 불상호기논구두

쇠 죽은것이 지

(갑) 너는 평칭에말을 그뿐시로호지말어라 제상연육퇴이라는 구두쇠놈은 불

상호고 공정호신 로좌슈는 남의적악을 헛다고 짓거린단말인가

(을) 여보게 조네는 남의일을 조세모로거든 감안이나안졌게 구두쇠가 무슨

죄란말인가 내가이러케 말호면 잠시라도 주걱간이 되얏스닛가 그스름을

편들어 호는말인줄로 알게지마는 조네는 구두쇠쳐디를 당호면 그러케안이

홀터인가

(갑) 무엇을 그놈에 쳐디당호면 그러케히 조세아는 말줄호게 드러보세

(을) 바로심스가 그르니 험위가 피약호니 말호조면 려승지의 마누라인가 그

잡것이 아쇼 말호슈업스인물이 지 구두쇠야 지호조되야 상전이 식이논디로

거헝호씨름이오 박씨로말호면 당초에는 제 상전이 지만은 제 상전이티문밖

게를 호번 나선이상에 상전디접이 다 무엇인가

(갑) 이 사람 그게 무슨 인사 불성의 소리인가 저네 말과 갖치 바로 박씨 부인이
형실이 글너 뒤 문밖계를 나섰드리도 제도리 되야셔는 함부루 뒤점을 못하
려던

함을며 구씨 쉼녀가 성판 모음을 잡아 친정으로 보닌 체하고 뒤로는 근히
최가의게 돈을 받고 팔아먹은 일인데 박씨 부인이 무슨 죄란 말이나 너도 이놈구
두 죄 경우를 당하면 너너히 그사위 짓을 하겠다

(을) 이 지식아 내가 구두쇠 경우를 당하얏다면 경을 쳤더냐 그사위로 일췌
션을 물세하다가 옥중 귀신이 되엿드란 말이나 너는 갈춘영의 집 스름이 낮간
갈춘영에 편은 올여세고 구두쇠는 쳐서 말을 하나보다만은 구씨는 죄가 잇셔
도 구두쇠는 용혹 무피오 최씨난 더구나 잘못이 업는이라

(갑) 이이 지식아 너도 나히 숨십이 불원하얏스니 지각 좀나거라 그게 슈작
이라고 하냐

네 말 고만두고 내 리 약이를 가만하 드려보아라 일호라도 내가 들이거든
들이 다고 말을 하여라

(을) 오나 엿의 말을 하여라 드려보자

(갑) 스름이 짐성보다 낫다는 것은 무엇이냐 짐성이 모로는 오륜을 사름이 능
히 아는 연고가 안이나

(을) 그러치
(갑) 오륜이 무엇이냐 즉 부조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
(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유신(朋友有信)이로구나
(을) 압다 그 지식 동몽선습 첫장을 너리외며 가장 유식한데하네 그리그게 오
륜이니 엿더란 말이나

(갑) 너가 유식한 체 하는 것이 안이라 오륜이라는 것은 사름마다 알고 오륜위
반이 되면 사름이 안이라고 하지안느냐

(을) 남의 말 잘하는 사름은 후그러케 말하나 이라마는 오륜을 저마다 직하면
저마다 성인이 되게

(갑) 그게 무슨 소리냐 효조충신은 못되야도 불효나 불충은 안이 되여야지 또
부부유별도

을이 손짓을 해해 너들으며

이이 장황하다 그슈작은 고만두고 스실 리 약이나 하여라

(갑) 우리 읍에 로좌슈님을 아모라도 효조라고 칭송할 만하지

(을) 그는 그러하지

(갑) 갈서방의 효행은 우리 읍 읍에서 다 알지 안이 하는 터이나

(을) 누가 갈서방이 효조가 안이라 했느냐 우리 리 약이에 그 말이 당키나 하냐

(갑) 압다가 마니 안져서 드러보아라 박씨부인이 그 고성을 향면서 도 타인에 게 허신을 안이 향앗스니 정형이 있다고 아모라도 할 것이

(을) 그분의 허신하고 안이 할 것을 네나 니나 엇지 똑이 알 수가 있나냐 그리고 그것이 무슨 정형이란 말이나 남의 지식까지 비앗더라면 가장 일부종수 하는 듯이 쓸티업는 고집을 향야 최서방에 장스 밋천만 번 쳐들게 향야 노코 이이니 도 그싸위 구석 위는 말 작작하라

(갑) 더 지식은 번연히 구두쇠가 제 이 기이로 락티 할 것이 안이라 구씨인가 그 잡 것이 즈기며 느리 모함 잡노라고 쥐새 짐을 벗겨 입을 속에 다 너은 것이라 할 는 것을 다 뜻고도 남의 부인의 말을 일향하느냐

(을) 그럭 그말은 그러하다고 갈서방집에는 웨 팔이여 왔더라 말이나 구두쇠 만 맛찰 안이 갖더면 지금 니외가 되야 아모말 업시 곳 잘살았겠지

(갑) 에이 안이 된 사람 남의 원통을 말 하지말게 그가 송죽 못흔 절형으로 최 가의 옥을 면향라고 몸을 쉼쳐 도망향야 서산 동리를 공교히 못섯는데 갈씨 가 처음에는 누구인지 모르고 마음을 달이 두었다가 급히 그 리력을 지세 알고서는 인히 남리지의를 미져 천동기처럼 녀이던티 구두쇠 안이면 니외 가 되었것구나 에이 인스 불성 못호니

(을) 고만 두어라 네나 니나 남의 일에 말 닷흠 할 것 무엇잇느냐 는는 나 드른티

로 리약이오 너는 너 드른티로 리약이지

그러나 갈서방과 그쳐남 처서방은 웨 박씨를 싸라 못다더나

(갑) 세상이 하도 위험하닛가 못갑지 안인길에 혼조 보닐슈가 업서서 싸라간 것이 안이나

(을) 처서방이 좌슈임에 스위가 되었다니 좌슈임이 웬일이 잇서 스위를 엇더 나냐 소문에 박씨를 슈양설 정향앗다더니 무슨 곡절이 잇난 것이 안이나

(갑) 너는 밤낮 남에 일을 지세 알도 못향고 주착 업시 짓거리더라 처서방이 좌 슈임에 사위된이를 드르면 참기 막힐 만하니라

(을) 무엇이 괴기 막혀

(갑) 우리가 각 뒤 혼인을 말히 보았지 마는 열이면 열이다 상년의 눈이나 괴이 고 제랑 될 만 쳐우고 상년의 덕을 실견 보고도 도라만 서면 상년의 흥이나 보 고 필경은 비은망덕의 짓을 향건마는 박씨 집 교전비 은네라는 계집이 허 못흔 충비는 넷날 스덕에도 별로 업겠더라

(을) 무엇이

(갑) 구씨인지 그 난장마질 것이 즈기며 느리를 팔아 먹고 은네를 거진 죽게 쉼 려서 감은 돌사는 구씨에 리질이라나 당질이라나 하는 것의 집에다 못다 두 었다가 또 돈을 밧고 팔러 먹었는디 은네를 누가 사왔노하니 로 좌슈임이 즈

손이나불가하고 젊은너편네를 구경던츠에 언의놈이 소기를흔이서 전천이 나 들러사왔더니 은네난 좌슈임이 양천가게실석의 의설로 정호얏는터이라 삼씩놀나 그 곡절을못고 불상이녀이여 친설초치 그덕에다 두엇난디 그씩 마참갈여간원임이 최가의 청을듯고 쇠코쉴레 공사호던 판이로구나 그일이엇더케되얏니

(을) 이이 그것참 신통하게 되었구나 그리 차서방이 은네와 니의간된것이지 아 마

(갑) 그 둘이 서로니외가 된것이안이 라 은네가 감은들잇슴씩에 지괴 상전소 식을 탐지는호여야 좌우간 엇더케호겝고 혈혈 단신이 움치고 뛰는슈업서 서 차서방을 비밀히사피여 스정을말하니 차서방이의 혈심으로 가스를젼쳐 노코나서서 스면으로 박씨부인종적을 탐지하다가 지괴미부의집에까지와 더란다

(을) 이이그일이 괴묘하게되얏구나

(갑) 지괴 미부의집에서 관츠를맛나 잡혀들러와 형벌을당호고 억울이 나송 을호야 박씨부인을 최가가되려가게 된것을 눈 버언히드코 보면서도 썸작 못하게되지 안아헛섯는나

(을) 아모렘 그러케썸 되얏섯지

(갑) 이이 무죄호스름은 하나남이불상히 녀이시는것이 안이나 땀에도성각지 안이호근슈가 장파를당호고 좌슈임이 서리가되서서 한번설치를 시원이안 이호얏는나 스실리 이리호티 너는 그잡놈들에 말만듯코 함부로 짓거리느냐

(을) 오나 네말을듯고보니 내가 잘못호얏다 그러나 구씨를 잡아니여 단근질 을호며 문초호는것을좀보앗스면

(갑) 글세라 니 믿음도 네말과일반이라 에 그 괴약호것을 실낫갓흔 목숨만 남겨 노코 전신에 송곳질을호야 제 죄상을 제 입으로 낫낫치토설 호는것 을 좀보앗스면 내 가슴이 시원호겝다

(을) 그집안일을 알슈업는것이 호가지있더라 려승제라던가 관판스령이라던가 지괴아달이 엇의가공부를호고 잇다난디 집안의 그런풍파가 느껴며느리서 제역시 제외 아버지를달마셔 우두권인지 아 마 이씨씨지 아모소식이 업나 보더라

밧그로서 웃더호즈가 툅씩여 드러오나보더니 갑을두사람에 말을 무지르며 이사람들 웨지도안코 킷담을호고안젼나 공연히 큰 봉변을호랴고 갑을이 일시에 웨그리나

그자가 씩공동을 할야 두사람에일이 싹 버리지게 할다
이스름을 너말듯게 내가 서울을 갔다가 오날이야 너려왔는데 려금지집일로
히서 지금경찰서가 발싯 뒤집히었네

(갑)

(을)

(그자) 려승지에 마누라와 그집의 회중연을 었던놈이 칼노 난장을 할야 죽인
일로 원범과 간연자를 잡으라고 스면정담이 느러섰는데 자네들 공연이 멋
도 모르고 회설 수설 짓거리다가 큰 봉변들 할리

(갑) 누가 안이드르니 말이지 압다그년 잘도 죽었네

(을) 여보게 그말말게 구씨를 누가 죽였겟나 츠츠드러보면 알지마는 필경그

며느리 조화기도 쉬우니

(그자) 글세 이스름을 남의일에 웨일이 입을들이나 나 도지들길에 드른말이
잇네마는 하도 위험히서 입박게 너지도 안이히네

(갑) 이스름 우리세리야 아모말을 할면 엇더 할단말인가 엇의좀 드러보세 겐
너를 누가 죽이엿다던가

(을) 이이 나는 못지이히도 짐작이나 셤다 그일은 갈티업시 그며느리의 조화
나라

(그을) 저네들이 할도갑々히 할나 말일세마는 미상불 그며느리 조화라는보데
(을) 그러면그러치 내가 범연히 알아슬가 더련몸슬게집 그리저의 식모를엿
더케 죽엿다던가

(그자) 저네는저것이 과하니 남의일을 공연히 걱리를너여가지고 나역시 저널
길에 드른죽 구씨를 아모도죽일 스름이업난데 별안간에 그지경으로 죽엿
스닛가 경찰서에서 평일구씨의 혐의잇는 스름을 스면조스 할엿던가보데

(을) 그리스면 우물고노쳤수로 그며느리에게 지목이갓겠지

(그자) 아마그런모양인가보데 전후정담이 그며느리거취를 도사 할는데 마츰
지디더고키의셔 감은들사는차가와 셔산스는 갈가가 너히형교구두치를 더리
고가다가 조션각이라고 할놈을 만나 서로무슨 리약이 할것을 본스름이
잇서서 그말이 경찰서로 입문이되야 그 광경보았다는 스름을잡아다가 스
실유무를무르닛가 분명하다 할는고로지금 진잠으로 령칙 할야 갈가 차가를
압상 할는 품이라네

(갑) 조션각이네 누구인디 그스름과 슈작 할얏기로 무슨죄란말인가

(그자) 저네는 쳐듯고말을 할게 조션각이네죽 구씨 죽인원범이라네

(갑) 원범인지는 엇지알아

구씨 죽인방벽상에다 티드로 살인조난 조션각이라고 써노왔드라네 그런죽

남리야이 하는것을 지나다 보고도 잡혀드러가서 지금고성을향하는데 조네들은
웨철모로고 이런구석업는 슈작을향고 닷도고넛나

(갑) 그러면 갈씨와 차씨가 억울심장으로 조가를식여 구씨를살히케헛슬가
(을) 번연히 알면서 어슈룩하게 저모양으로 말을하지 억울심장이 무엇인가

박성녀와 남리인지무엇인지 밋고피차에 죽자사조하는 터이닛가 세스름에
창조가 홀데이어져서 그짓을향후 저의드른 아모판계업는데향고 잇는것이
지

(그자) 아모럼 조가가죽인것니죽 갈가와차가 죽인것이 지오 갈가차가죽
인것이 죽 박성녀가 죽인것이 지 모를것이 무엇잇나 경현이가 처음에 갑에
슈작을듯고 조그부인고초격근것이 혼업시불상을뿐안이라 조그게모의 불의
하디한일이 얼마쯤 온당치못흔줄로 생각이들다가 급기나종드러온조의 명
화흔리야이를 드르니 분기가 충던향야 그 다른말은 더 듣지도안이향고 혼
조말로

설혹우리 어머니께서 생각이 잘못드르셔서 제게디향야 과도향신 거조를향
섯기로 저되야서는 제도리를다향여야 당연향거늘 : : : : 응제가 외인을체
결향야 우리어머니를 살히헛서 : : : : :

이것은 나의가속이안이라 죽 나의 불공 디천지슈인죽 스실을귀터여 알아

볼너부업다

이길로서올로 도로올나가 갈가 차가 압상향노동시에 박녀까지 잡으올너달
나향야 법정에서 어머니원슈를 안이갑향 쥬는디경이어던때 손으로사다
듬이라도향야 죽이게짜향고 그밤도아서 서울로드러와 조그부천제 조그드
른이악이를 열열히향후 박씨압상향야 달는는 고소장을 경찰서로 드렸디
라

려승지난 조그만누라구씨는 일호잘못흔일이업고 천정으로보넛 떠느리가 천
정의논안이가고 음란향행실로 다른놈을 짜라간줄로 확실리 알앗더니 경현에
답지향 말을듯거디 모다구씨에잘못이오 떠나리논 스세부득이 그디경된일이
라

조그만누라 죽은일보다 조그가속은것이 더분향야 안으로 드러가며 소리올버
럭 질너 처란을부른다

(러) 처란아 형이잉터를향지도 안은것을 웨락티향앗다고 것짓말을 지어넛스
며 천정으로보넛다고 쥬는놈에게다 팔어먹엇더니 너는 번연히알면서 왜나를
썰썰이속엿느냐

(치) 누가그런말을 터문이업시헛오

(러) 터문이란것이 다무엇이나 이년양큼스름게 네오리비가 양슈옴으로서

산으로 도라단이며 죄다 담뭍을 먹고 왔서 그리도 바로 말을 못 할 사
 처란이가 그 말을 듯더니 얼골이 발기 지고 아모 말을 못 할다가 남의 모함잡기를
 저의 어머니와 추월의게 졸업장을 맞은 아허라 당장 저의 아버지마음이 빗두로
 도라가게 말 할 마디를 만드려 한다

(취) 예그 아버지 지식 되야서 아버지압해 이런 말씀 하는 것이 불효의 일이 오나
 나는 오날 밤이라도 간슈나 양지스물을 먹고 죽겠습니다

(려) 요년 그게 무슨 방정 마진 말이나

(취) 암만히도 살 생각 이 업셔오

(려) 웨

(취) 아마 지게 서는 생각을 못 할 심닛가 음바가 그안악만 알고 어머니는 몰나서
 빅쥬무근 지설을 어서 듯고 아버지씩 옆집가서 지 허더라니 예구아모리 우리
 어머니가 음바를 나치를 안이 흥섯다구 모지의 분의를 생각 할 기로 월통이도
 라가신 웬슈를 갑하드리는 마음은 업셔 도로혀 세상 몸슬허물할 씨우려 들어
 오니가 아모리 아무작에 못 쓸 쟈지식이 지마는 어머니 불공덕 천지슈를 못 갑
 고 살아 쓸 터가 무엇이며 구구이 살면 쟈무엇 할 닐가 아버지시라야 천만년 계
 설슈업고 아버지도라가신 후에 는 음바를 티산곳 처 밋을 터인디 소성조안이라
 고 어머니씩 그런루명을 씨우려 드는 터에 비달은 누의나를 류축만치나 녀

일터이야 오 나는 전작 죽어 모를 터이야 오

허더니 흥々 늦겨가며 어머니를 불으니

열업손 러승지난 그정경이 씨가 압호게 분홍마음이 성기여 조괴인들의 전호
 던말이 한 마디도 바른 것이 업고 모다 거짓말로 제쳐를 변호 할고 제모를 모함 할
 는 것으로 썩알아서 못 난 말을 니여 늦는다

(려) 오냐 거정 말이라 나는 그다 지어 두어서 소위네오라비 말을 짐작 못 할고 드
 렷겠느냐 너의 어머니 불상 할 것은 나 죽기 전에 못이 즐터이오 그원슈는 너성
 명이 실어져도 시원이 갑고야 말터이다

그러나 소위네오라비가 제계집을 알상 할야 달나고 경찰서에 신청 할앗는 즉
 의면을 생각 할 기로 저도 소견이 잇슬 터이니 엇의가 만히 두고 보지

(취) 무얼음바가 의동스러워서 그너편네 죄상이 발각되는 날이면 아모려도 온
 전치 못 할 것스닛가 미리 봉화를 질녀서 씨여 늦추는 계교 지오 그리기에 일변
 압상 할야 달나면 저도 전후 죄를 어머니께로 모라 부치고 그너편네 발명을
 은근히 흥는 것이야 오 세상에 하교공부를 흥는 터에 부모보다 너편네를 더 알
 아서 더 모양을 할가

러승지가 처란의 말을 썩을 케녀이코 하인을 불으더나
 네 사랑의 나야가 서방님 영금드러오라 고 흥어라

경현이가 하인을싸라 드러오니 러승지가 눈을몹시 흘려쓰고 불호령을한다
 (러) 너는나이의이심이 불원한것이 어미아비논 몰나보고 제집만 데일로아나
 엇더케할작정이나
 경.....

(러) 제집과아모리 음슬이도키로 어미를죽인아상이면 불공덕던지슈어늘너
 는경향으로 골몰무가히단이며 네어미는 악한덕으로 모라넛코 소위네제집은
 효부털녀를 만들나고 전슈를항니

이즈식 그리서야 이세상에 룬리라는것이 엇의잇겟느냐 소성모만 어미오
 제모논 어미가안일씩 넛날디술(大舜)도 그제모를 잘섬김으로 효조가되고
 민조건(閔子建)도 그제모를 잘섬김으로 효조가된것을 너도글스즈나 일것
 스닛가 필경알겟지

경현의두눈에서 더운눈물이 좌々흐르며

(경) 어미모로는즈식이 제상에엇의 잇스오릿가 방장 압상항야달나 신청을항
 앓싸온즉 심사항난마당에 제죄가확실항면 제비를가르고 간이라도너여 씌
 을더이을시다

(러) 중사도네 제집의죄가 확실히잇는지 모로겟다는 말이로구나 오-엇의
 압상이되거던 네쳐스항는것을보조 관청의일을 미리알슈가있나나 만일압상

을 안이하야쥬면 엇더케할터이나

(경) 압상을안이히줄이도 업습고 설혹압상이 아니되는 경위이면 제가진잠으
 로 쫓츠가서라도 원슈를 갑겟습니다

이떡 처란이논 그것허야모말업서 안저울기만항다가

에그 몹시도라가신우리어머니만 불상항시지 다쓸터잇나

(러) 네누의 우난것을보니 네모음에논 엇더항냐 아마너도 인정곳 이게되면
 편처를못항겟지

(경)

(러) 오-네가이원슈를 시원히갑하야 내즈식이지 만일그러치못항면 내즈식
 이안이니라

경현이가 그갓치엄절한 친교를듯고죄지 유무경중은 도사항여가업시 박씨곳
 맞다면 당장타살을항야 그어머니혼령을 위로할작정을 항고 법석에압상항기
 만고의항는디 몇철이안이되야 경찰서로서경현이 출두항라는 명령이잇는지
 라 경현이가분쥬히 경찰서로 드러가나

그역서장김씨는 러승지의 일번지언을 썩고지듯고 박씨부인만 텨항에 용납
 지못할 죄인으로 추축항야 신문항는마당의 갈출영 차두형의말은 도모지드른

체 안이 하고 전후좌를 박씨에게로 모라붓친다

(서장) 이년 박성녀 뜻거리라 나는 엇지된 인종이관디 소위량만에 짐조식으로
로류장화보다 더음형을하고 필경스어미를 살히서저항얏서

(박)

(서장) 웨말이업로 몸에다가야 바로도설을올가

(박)

서장이 좌우를 명령하야 형구를드러 박씨을올여미고

(서) 전서맛기전에 바른되르고항렸다 박씨가외외에 서장에말을들으니 일변

기가막히고 놀나와서 처음에는 아모말도못항다가

(박) 엇지신 분부온지 제형실에 되항야는 명령이 너리 곱어살피시나 다시

말슴 엇줄길 업싸오나 식어미를 살히항였다 허심은 엇저신 분부온지 조세

일너주시기를 바라옵는다

(서장) 네가 할것을 내가 몰나서 나다려 가라쳐달나고

에이양금항고 도담시럽고 네 식어미 죽은일을 정영몰나 미를마저도 모른

다고항서

항고 어서떡리라 호령이설리호호니 좌우가 달여들이 혁편을들고 옥조흔박

씨의 두다리를 류혈이 랑조항게떡린다 부인은 그 몸을미를마즈며 혀를씨물

고 아모말업시 올기만항는디 춘영과 두형이는 더스항고 그러쳐안임을받명고

저항는 다만항마디도 입을떼여 노치못항게하니 분심이랑중하야 엇지할줄모

로난디 무식항 흥갑의티외는 저의가어서 노여나가만바라고 심문마당에 잡혀

올나와 제누의추월의 간게티로 박씨부인에몸에다 런고의용납키 어려온죄명

을 씨워말을올다

(서장) 너는 네집에서 그런변이 낫는디 도모지알지 못항얏다는 말이만분이

나 근리항가 썩바로고항렸다

(홍) 마님만 살히를당항실별아이라 소인의 누의역시 몸시죽엇싸온디 그변나

는것을 알고보앗스면 전시고항옵지 안을이가 잇싸오릿가 그러항온디 조세히

는알지못항와도 의심항가지들기는 죠션각이가소인의 처남이오나 소인은무

식항고 선각은유식항야 피초에도부동흔 싸툼으로 왕티가별로 업슬별안이오

라 더구나려승지디일을 제가알이가 만무항온디 슈일전부터 엇던절문놈이 소

인의집근처로 빙빙도라단이며 형석이극히 슈상항디 무슨관계가 잇는지 소인

의누의를 불너니여 두번이나 귀스속말항는것을 소인은장스의 곱몰항노라고

조세녀여 뜻지는 못항얏습니다마은 얼끌던형이 더기잡혀온 사름과 어지간함

니다

(서장) 올치그만항면 짐작할일이있다 고만두고 저리물너잇거라

하더니 갈차량인을 혁편으로 썩리라고 하며
(서장) 이놈 죽기전의 진작바로도설을 하렸다 네가 무슨감언리설도 추월이을
썩여 구씨부인을 유인하야다가 살히하고 가화(嫁禍)할흥페로 조선각에일흥
을 벽에다쓰고 도주할것이안인가

(갈) 그는정거업는 억울한 말슴이올시다 저의들은 박부인을 비형하야 진잠
으로 내려간후 서울쌍이라고는 이번에야비로소 발바슴니다 그는박참판타린
근동리 사름이모다 아논바이오니 모다불너라도 무려보십시오

(서장) 이놈잔말이 무엇이야 미리짜노은 것이로구나 죄상이 임의발각되얏는
디 종사도 무엇이라고 항거를호로라고 어완피 흉악한놈이로구

(차)안이올시다 경찰하옵시논터에 아뭇조록 죄지유무를 명확히 도사하옵서
저의들이 과연죄가잇사오면 당장죽소와도 할가을못할것이오 만일죄가업스

오면 달이처분하옵시논것이 당연치안이하오닛가
(서장) 버럭진로하야 반즈가났다고 썩면서

네그놈다시 말을못하게 아깁이을 짓찌어라 이놈잔말이 무슨잔말이야 네져
놈 피가득사뒤어나도록 잔치질을하야라

더년박성녀도 제아깁이에서 말이나오도록 죽기한하고 썩리여라
이날을당하야 공평정직한 사름으로 그광경을목도하면 참혹원동한 믿음이씨

의사못치고 분타억울할싱각이 가슴의서슬러 후눈물도 위히흘이고 후 죽먹도
썩너나 스력으로 엇지하난슈가 잇스리요 그중의려승저는 가족관계조로 불너
들러와 말숫마다 구씨는 청청빅빅무죄하고 박씨만던지간 용납지못할 죄인을
만드난디 지각이그러치안이호 경현이도 박씨의소위안임을 확실히 모롬으로
즈그부친에 듯을승순하야 박씨를 즈그손으로라도 죽이어 그어머니 원슈를갑
홀듯홀디 소위신문안 최가는 즈겁이나서 김히은적을하고 나서지안이하고 갈
차량인은 조선각에맛나던일을 말하고집이나 조선각이가 업논이상에 할것박
씨부인에게만 괴약죄명이 더홀지라 일정그말을 입박게못되고 형벌을당하
니 스세가할일업시 무죄호세스름이 후독호형벌의 후더진녀이 될디경이라
은네가 세스름압상하는 양을보고 세상궁금함을 못견디여 그뒤밧쳐 서울로싸
라올나오즈 경찰서로 또잡아드리어다 그와갓흔 형벌을하며 원동호죄명을씨
우라하나

은네는 이번죽디리도 말을바로하야 박씨부인루명을 벗기라하나 말은못하게
하고 미는독하게 밧치니 할것죽을다경에 이를씨름이라

서장이 죄우청축을 드름일년지 선입지견(先入之見)이되야 박씨를 그르케녀
임일년지 괴여하박씨를 모살원범으로 만들어 재판소로 넘길작정인디 별안간
에엇디하자가 경찰서디문을 두다리며 발팔할일이 잇다하논지라 일반경관이

곡절을 몰나 심히 단황이녀이다가 불너들려 말을못는다

(서장) 웬사름인디 무슨소회가잇서 드러왔소

(그자) 예-본인은 구씨와 추월을 살히호 사름이올시다

(서장) 이십분괴히이 녀여서

(서장) 네성명이 무엇인고

(그자) 성은조가고 이름은 선각이올시다

(서장) 분명

(조) 분명 그러호오이다

(서장) 네나히얼마나

(조) 이십이세올시다

(서장) 칭업은 무엇올히

(조) 어려서 동경에건너가 류학을하옵다가 조선으로 온지몇달이 못되야 아주 아모성업도 업습이다

(서장) 그러면 구씨보인과 그딴하인추월은 무슨일로 살히히스며 살히를호고

도주를하야다가 지금이러케저현은 웬일인고

(조) 예-엿쥬오리다 본인의누의가 추월에오리비의 처가되얏습이다 본인이

처음성성에를 드러와 별로친분잇는 스름은업삼고 저연 미가에를 자조상중

홍윤인디

(서장) 그리서

(조) 하로는 유인에잇노라니 미부집에서 사름이와서 급히부르기에 가온즉미 밖에 누의추월이가 제상전 구씨에말을전호며 그며느리 박씨부인을 살히호 야쥬면 전만이나 쥬마호옵기 엿전곡절을 못즈온즉 추월의말이 박씨부인이 hing실리 글너서 그남편업난동안의 조식저지비였고 친정으로 보니라호얏더 나 종로에서 간부와 도주를호얏는디 괴왕그디경 되얏스니 홀구석에죽은듯 이나 잇서스면 오히려조호련만은 계가셔도 hing실을란잡히 가치다가 필경송 스질이나서 점점식집났을 색길뿐만이라 그식어머니 구씨의 흥을지어너여 장초거두를 못홀디경이니 그런인종을 그티로 들수가업다 호옵기로

(서장) 그리서

(조) 감안이 생각호은즉 그일이 필유곡절(必有曲節)호은디 안이드르스면이

어니와 듯고셔 그티로 잇슬슈가업스와 짐짓못기를 박씨가 그디경이면 입

조가 확실호야 외인디면을 잘안이홀터인디 나다려 엿더케 죽이라느냐호은즉

(서장) 그리서

(조) 추월이디답이 제오리비 즉본인의 미부호갑이가 박씨거취를 램지호려양 쥬옵싸져 갖다왔는디 어니날썸은 분명셔나 조기친명에를 단이러간다호니

지지디고키에가 적히고있다가 죽여업식달나 흥읍기 본인어말항기를 구씨 부인을면덕항야 말을드러보아야 흥겅다 흥얏습더니 과연그잇은날 주효를 성설항고 본인을 불넷셔오

(서장) 그리셔

(조) 급기가본죽

(서장) 엇의로가보앗셔

(조) 흥갑의 집으로맛나기로 약조가잇스온고로 흥갑에집으로 갔습니다

(서장) 그리셔

(조) 과연구씨가 왔는디 추월의말과 여출일구(如出一口)로박씨를 죽여달나 흥읍기 그말을일변드르며 일변싱각흥은죽 구씨의 잔악함미 짝이업습기로 얼마썸그일을 시형할슈업다 흥얏더니 추월이와 구씨가서로 눈짓을흥고박 그로 나아가는것을보고 심분슈상히녀여 그뒤를슬몇뵈어나아가 옛드른죽 말을더히보아 청중흥면 이어나와 만일일항거절흥거든 독약을술에다 타먹 여 죽이여 후환을업식조흥는 소리를듯고 모골리송연항야 가만히다사드러 와 당장에 죽여업실마음이 드러가다가 다시싱각흥기를 미스를 경술리항면 랑리가쉬우니 엇의쾌히 허락을흥고 지지디의가셔 박씨일형을 기디려그런 말을 드러보아 과연구씨에말과 갖치박씨가 음난무도흥면 열번죽여도 관계

치안이흥고 만일박씨는 무죄흥디 모다구씨의 모함학되고보면 구씨을되죽 여이제상에 요일을제할리라 흥읍고 구씨을향항야 걱정말나 허락흥후지 산분반할게약서지 바른후 지지디고키에를가셔 감안이기디리고 잇습는디 과연박씨일항이 오기에

(서장) 그리셔

(조) 그일항에 남즈들리 비형히오더니 교군을너려노코 쉬는승시항야 그남즈 와 인스를흥죽 흥나는저그잇는 갈춘영이흥고 흥나는더그잇는 차두형이을 시다

(서장) 을치 네가 저두놈을 만나보왔구나

(조) 예 맛나보앗습이다 슈인스이후에 박씨부인너력을 일일히듯조은죽 세 상에 그러케 무던흥부인이 다시업고 구씨와추월의 요악흥전후정담을 모다 짐작할겅습기 그조리에서 아모도록 평안히 모시고가라 당부흥고 즉시회정 흥야올나오다가 석전거리에서 키흥마리를사셔 다그이를 잘나보에싸가지고 서울로드러와 흥갑에집에를 차자가넷가 추월이가 본인을기다리 노라고와 잇습기로 구씨가오며 반가히인스를흥고 무흥치스흥읍기로 당장흥사를흥라 다가 세상일을물나 다시제말을 들어볼야고 슬슬무러보은죽 저의들은 아뭇 조륙 장찬을흥야도 본성이조연탈로되야 전후죄상이갈춘영 차두형말과 다

름이 업습기로 짐짓기다깁이을 뵈이어 마음을 늦게하고 품에 품엇던 칼을 뉘
여 두게 집을 난조하여 죽였나니다

(서장) 그러면 도망을 웨히스며 도망하는놈이 성명은 벽상의 엇지히서 써노앗
스며 지금와서 조현은 무슴연고인고

(조) 예- 조세알외이다 본인인 스펀을 들식 살히고 구구히 성명을 악기어 도
주흔것이 안이오라 도주흔기는 아 못조록 살아있다가 박씨부인의 미흔 발명
을 놓아 드리자 함이읍고 성명을 벽상의 써놓기는 본인 미부외에게 죄명이 도
라갈가 함이올시다

(서장) 그러면 남은 살히코 너는 죽을 줄 모르고 조현을 놓앗스나

(조) 사름 죽인자가 죽난거는 당연한 리치어늘 엇지 성명을 앓기 올릿가 원범
본인이 임의 등티 놓앗스온즉 무죄한 박씨부인과 기라 무죄한 스펀드를 일테방
송할읍소서

하더니 품속에서 비슈를 뉘여 뵈이며 이같이 구씨 죽이든 것이 올시다 이칼로
본인 죽어 살인흔 죄를 당할것스나다

하고 조그비를 조그가 드유거어 서장 압헤서 죽스오니 서장 이항일반 경관이
티경소피하야 일시에 달려드러 구하라하니 죽기로 결심하고 요히 처를 중상하얏
스니 엇지 회성할슈가 잇슬이오

려승지가 조션각에 너여 늦난 죄산 반분하조난 계약을 보고 심분 통분 혼중 그싸
스흔 말을 듣고 그조살하는 광경을 보더니 곧하게 자든 꿈을 써인듯이 구씨의 요
악 무도함과 박씨에 청백 무죄함을 세닷고 박씨부인을 보잡고 눈물을 비 오듯 흘
리며

시아비가 박자 못하야 요악한 것에 말에 고후하야 너로 하야금 원통한 누명을 써
우고 못담을 용을 다 당하게 하얏스니 이런 괴막 할일이 세상에 또어디잇스나
진작 죽어 모름이 가하도다

박씨부인은 목이 메여 올기만 하느니
서장이 박씨부인을 향하야 조기에 오히함을 저슴사과하고 려승지를 압흐로 불
너 일장 효유하는 말이라

내가 지각이 부족할 탓으로 그티부조의 무소를 고지듯고 비옥 무한 박씨부인
과 외고스년흔 갈차량인을 압상하야 무쌍흔 형벌을 놓얏더니 지금 조션각에
공초를 듣고 그조살하는 것을 보건티 그티들도 응붓그러올지라 그러나 넷
성인 말씀이 사름이 누가 허물이 업스리오 곳치는 것이 귀할 다 하얏스니 지금
곳박씨를 집으로 다리고 나아가 안은 허거늘이되 요괴흔 처와 간악흔 하례에 죽
은것은 즉 조션각의 스력으로 죽인것으로 알지말고
곳런 벌을 받아 죽은 줄로 녀이며 조션각은 그티에 처와 하례를 죽인 원슈가 안이

라 그티에 집을 중흥케 한은인으로 녀이어 아뭇조록 미장을 하였다
 (려) 이 늙은 것이 지각이 업서 악흔 처의 게고 흑흔야 현철흔며느리를 그췌 처박
 티 하얏스오니 상당흔 벌을 받들리도 혼가를 못하오려든 이 처럼 효유를 하옵시
 는디 엇지 감히 희기를 안이하오릿가
 서장이 또 경현을 불나압 히세우교

그티에 처디되야서는 극키어려오나 구씨가 그티에 모친이라도 그티의 집요열
 (妖孽)이라 당연히 죽여 업실 것이오 또는 조션각이가 살히호고 지금조살하얏
 스즉 그티의 살모지슈는 임의 갑흔 일테오 지어박씨하야는 한갓그티 모친간
 계학티에 빅천가지로 고초만겨것지 살인거스의 일호관계가 업스즉 조금현
 의치말고 아모조록 녀의가 흥화호게지니티 모친에 죄을 감하는 것이며 저같은
 차량인으로 말하티도 그티부인에 억울흔물불상이 녀이며 남리에 의을릿고
 불페공우하야 호위하다가 오날날월동흔 형벌호지당하얏스니 나아가서 그
 신세를 잊지말지오

녀은네로예하면 비록그티에 집의서 스환을하던 현인이나 그소경역을듯건티
 슈화를 피치안이호고 상던을위하야 충직흔정성이 고금에든은중 임의그티
 에 부인과 화란동고흔 의리로 형데에 의을미졌스즉 다시는 이와췌치하티
 치말고 친쳐제로 티우하야 그가상흔뜻을 표장케할지이다

서장이 그다음에 은네와 같춘영 차두형을 향하야 무죄히 흑형당흔일 저슴위로
 하야 흥갑니외서지 빅방을하얏더라

려승지가 여러사람을모다 조그집으로 티리고와서 면면히사과겸위로 들다시
 혼후 처란은 갑흔말로 반복호우하야 아뭇조록 이와갓치 현의악흔마음을 두
 지말나 하야가흔흔흔 처의 출가케호고 그남아천만가지 처리흔일은 모다그
 들 경현과 며느리박씨에게 쓰러맛기고 조그는간사언의 정결흔곳에 한가히거
 처하야 날마다나티들들고 빅구를스피여 남겨지제일을보니더라

경현이가 조그집이옷에 집흔치를스서 은네녀외와서 살게호고 조석으로 친형
 제갓치 지니며 서산갈춘영의 집과 피초롱가지의가되야 한집안처럼지니더라
 박씨부인은 가슴에싸엿든 원동흔일을 시원이신설하얏스이 한이업서 갑부련
 마는 조그로인하야 그식어머니 참혹기 세상을버린일을 생각호고 항상죄인으
 로조처하야 평시라도 웃는잇몸을 타인의눈에 보이지안이하더라

이셔치란이난 던동정춤의 아들에게로식집을갓더니 저의어머니 남은죄를받노
 라고 그럿든지불과 몇달이 못되야 과부가되얏난티 소년과부로 웃지슈절을하
 야 유유흔세일을 보니리오마는 기가할뜻이잇스면 가흔한 지리를듯보아 키가
 들흔것이란이라 하례비와 간동이되야 승야도주를하더니 이리저리넘어단이
 다 가종리에난 박씨부인사가라던 신문안최가의게로 팔이여가서 비상흔고초을

계더라

봉선화하권 종

김순각

田村

小林町二六九

봉선화

